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오라

(아모스 4:1~13)

6.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8. 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오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오라'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탈리아의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Luciano Pavarotti, 1935~2007)가 자주 불렀던 "돌아오라 소렌토로(Torna a Surriento)"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움에 가득 찬 이 노래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정열적인 활발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적인 선율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저 바다와 그리운 그 빛난 햇빛 / 내 맘속에 잠시라도 떠날 때가 없도다 / 향기로운 꽃 만발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 내게 준 그 귀한 언약 어이하여 잊을까 / 멀리 떠나간 그대를 나는 홀로 사모하여 / 잊지 못할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 돌아오라 이곳을 잊지 말고 /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소렌토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휴양지인 나폴리 섬보다 더 남쪽에 있는 항구도시입니다만 이렇게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지방은 먹고 살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최남단 시칠리아 섬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편입니다. 농경시대가 끝나고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많이 향했던 곳이 미국의 뉴욕과 아르헨티나 등이었습니다.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로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이탈리아 남부지방 출신으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습니다. 당시에는 아르헨티나도 목축업으로 굉장한 경제대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듯이 이들도 대부분 어렵고 고달픈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소식이 소렌토에 들려오게 되자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가 지어진 것입니다. 비록 풍요롭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바다와 빛나는 햇빛이 있고 꽃이 만발한 동산이 있는 고향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낯선 땅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애절한 노래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입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애인을 향한 호소라는 느낌이라면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형제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 노래를 바탕으로 영화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말려든 동생을 살리기 위해 형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동생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출세하게 되고 학술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에 갔을 때에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의 누명이 다 벗겨졌음을 알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가자고 하던 차에 형은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됩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차마 형이 죽었음을 알리지 못하였는데 어머니와 형수는 이 말이 거짓말임을 짐작합니다. 어린 아이만이 아빠가 올 날을 마냥 기다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돌아올 수도 없을 때에 그 마음은 너무나 애절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박재상의 부인이 망부석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 선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돌아올 환경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 선민은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풍요와 번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와 번영이 찾아오기까지 선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선민들이 바랐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모든 요소들을 없애는 일에 주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를 닦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탈북 청년이 끼니를 거르며 살 때에는 이가 튼튼했는데 오히려 남한에 내려와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다보니 치아가 상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는 곡식을 영글게 하는 시기에 내리는 늦은 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몇몇 성읍에만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인접해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한정된 곳에만 비가 내리니 이상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라고 하였습니다. 요엘서에서 메뚜기 재앙이 남 왕국 유다를 덮쳤던 것처럼 북 왕국 이스라엘에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 곡식과 과실들을 잃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게 하시는 등의 역사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태롭게 하심을 통해서 선민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선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도는 선민들의 풍요와 다산에 대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안 벌리고, 건강도 안 좋고, 가정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 선민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풍요와 다산을 손에 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해 작업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와 다산과 성공을 바라는 선민들의 삶을 방해하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민은 하나님의 끈질긴 시도를 이겨내고 여로보암 2세 때 전무후무한 번영과 풍요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통을 주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고, 메마른 땅 중동지역에서 물이 부족하게 하시고, 재앙으로 곡식과 열매를 없애시고, 전염병을 보내고 청년들이 전쟁에서 칼에 죽어 산처럼 쌓인 시체에서 악취가 나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도 같은 일들이 선민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들을 보면 결국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는 소원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은 시대를 불문하고 비슷합니다.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고 가정과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많은 수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로인해 풍족한 양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소원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소원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함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 하느냐는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세상에 대한 소원을 방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 가진 선민들의 소원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하나님께서도 그 소원을 깨뜨리실 수 없었습니다.
선민들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걱정이고 사업이 걱정이라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라고 착각하며 실제로 돌이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라는 노래에서처럼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풍족한 양식과 사업의 성공이 결코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렌토의 가치를 놓친 채 이민을 떠났지만 노래에서 나온 대로 빼어난 경관을 가진 소렌토는 부자들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고 소렌토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이민 생활을 하지 않고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돈 벌겠다고 이민을 가서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에 하나님은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을 배우자에게 이민 보내서 고생하며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부부관계를 오히려 방해하십니다. 풍족한 양식이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힌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촉구입니다.

사람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고대광실에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선민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특히 1~2절을 보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북쪽의 평야지대입니다. 이곳에서 키우는 살찐 소와 양이 유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번영과 풍요로움을 구가하던 북 왕국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풍요로운 상태에서 이들이 약자들을 학대하고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쁨과 만족의 특성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너그럽

고 긍휼히 여깁니다. 국경일이 되면 대대적인 사면을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 생기면 굳이 자기 돈 써가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주인이 먹을 만큼 먹고 배가 부르면 남은 음식은 머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에게서는 이러한 기쁨과 만족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소수의 약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압제가 얼마나 악랄했는지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의 가장은 가족들의 끼니가 가장 큰 염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술시중을 들게 합니다. 여기서 술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본다면 어떨까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 잘 배분해 쓰면 평생을 살 수 있는 큰돈입니다.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볼 때에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도 가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티끌 같은 돈까지 훑어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힘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놓은 사회구조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기업 본사가 소규모 지점들에 대한 횡포 같은 것들이 뉴스에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치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면 만족하고 상생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만족이든 작은 만족이든 그것이 정말로 만족이라면 너그러움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긁어모으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베푸는 것 같아도 실상은 더 많이 벌어들이기 위한 투자인 경우 또한 많습니다. 정말로 내 것을 나누겠다는 의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기쁨과 만족을 찾아 세상으로 이민을 떠난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선민이 하나님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이민을 가고 있습니까? 기쁨과 만족을 찾아서 직장생활로 사업으로 가족에게로 이민을 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 일들을 안 풀리게 하실 것입니다. 일이 안 풀리게 하시고, 사업도 힘들게 하시고, 부부간에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에 원하는 대로 풍요로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민 간 그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확신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북 왕국 이스라엘에는 전무후무한 풍요로움이 주어지게 되었지만 그로부터 고작 30년 만에 여섯 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이 이어지고 결국 앗수르의 침공을 당해 흔적도 없이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결코 이 무서운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양식과 물이 부족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사업이 어

려워도, 자녀의 문제가 힘들어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도, 나라가 불안해도 확고한 기쁨과 만족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찬란한 햇빛이 있고 꽃이 만발한 동산이 있는 소렌토로 돌아오라고 노래하듯이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돌아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진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마음에서 기쁨과 만족이 사라질 때마다 이것을 떠올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세상에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때에 마음은 이미 자녀에게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데 잘 되지 않으니 화가 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마음은 세상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라는 노래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다시 외쳐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함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아르헨티나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듯이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아 이민을 떠나는 영적인 이주가 끝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옆에 와 계신 아버지께로 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 외에 어디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배우자든 자녀든 돈이든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따라 이민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민의 근성인 방랑벽이 근절되고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